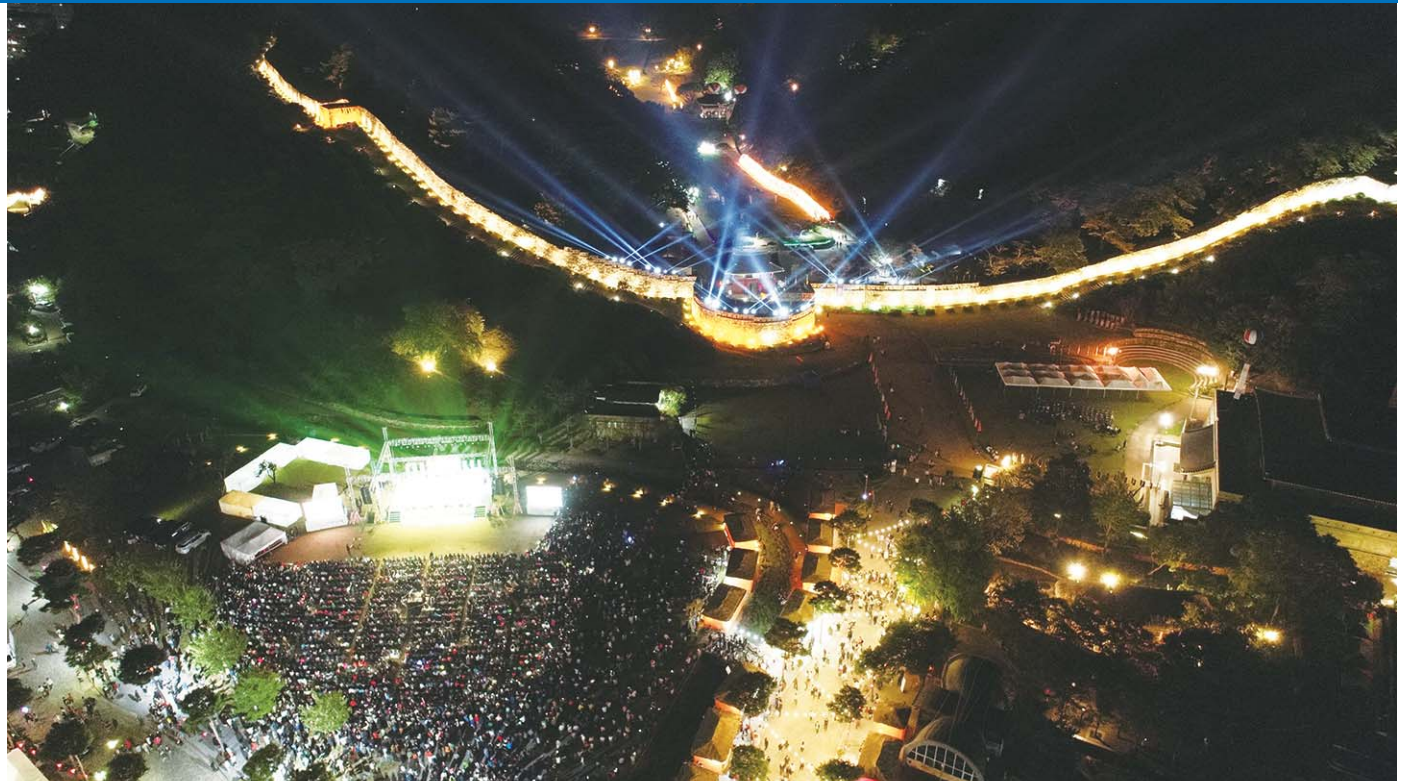


# 현재와 미래 전통 넘나들다

19일부터 23일까지 모양성 일원서 개최

함께 걸어온 50년, 미래로 여는 100년 을 주제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제50회 고창모양성제'가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축제의 성공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50회를 맞아 화려한 야간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미래와 현재, 전통을 넘나드는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깊어가는 가을 밤, 모양성에서 경험하는 환상적인 쇼

제50회 고창모양성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밤이다. 장렬했던 햇빛은 어느새 서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하늘은 어느새 붉은빛과 푸른빛이 교차한다. 파스텔톤의 색깔은 이곳이 현실 공간이라는 자각을 잊어버리게 한다. 19일 오후 7시 고창읍성에 경관조명이 켜지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역사가 '미디어파사드' (건물외벽 영상투사) 기법으로 모양성 성벽에 연출된다. 수목화로 표현된 고창의 비경을 시작으로 민초들의 땀으로 쌓은 모양성의 특성과 축성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동학농민운동에서 만세운동까지 역사적 순간들을 담아내면서 감동을 극대화한다.

모양성 안쪽 울창한 대나무숲에서는 '공존과 상생의 숲'을 주제로 제너레이티브(Generative) 아트쇼가 펼쳐진다. 제너레이티브 아트는 컴퓨터가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조합해 작품을 만드는 예술 영역이다. 음식의 계절 변화에 따른 조명과 음악연출을 통해 대나무숲에서의 황홀한 야경을 선사한다. 이외에도 축제장 메인무대인 잔디광장에는 모양성 둘레의 19개 고을의 각자성격을 상징하는 조명과 그 주위를 돌며 답성놀이를 체험하는 조명이 연출될 예정이다.

특히, 땀줄과 남치를 연결해 자연마당과 노동자수자를 아우르는 달빛 수상길에 조성되어 아름다운 가을밤 고즈넉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산책할 수 있는 모양성 달빛 기행도 열릴 예정이다.

### ▲드론라이트쇼·불꽃쇼 기대감 UP

20일과 21일 저녁 공연 후에는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진다. 수백여대의 드론이 화려하게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역사 미디어파사드 기법으로 19일 밤 모양성 성벽에 연출

20~21일 저녁 공연 후 축제 성공 응원하는 드론라이트 쇼 펼쳐져

대표 프로그램 답성놀이 강강술래달BAM 등 관광객 참여토록 문 활짝

울 컷 시도 '백투더 1453' 등 모양성 안서도 즐길거리 마련

일회용품·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없는 '3無' 목표



불을 밝힌 모양성과 축제장을 날며 제50회 고창모양성제의 성공을 응원한다. 마치 별을 보는 듯한 감동을 주는 드론들은 모양성 위에서 순식간에 공복투(음성 북문)를 그려내고, '풍요롭게 찬란하게' 문구를 만들어 낸다.

축제의 시작과 마무리에는 이전 축제보다 시간대를 대폭 늘린 화려한 불꽃놀이도 예정돼 있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공연도 풍성하다. 19일 저녁에는 프라케나, 20일에는 SG워너비, 손태진, 21일에는 다이아리뮤오, 크리닝넷, 23일에는 심수봉과 설운도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 ▲답성놀이·강강술래, 고창군민과 관광객 하나된다

반백년을 이어온 고창모양성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역시 답성놀이다. '고창모양성제'의 중심이 되는 답성놀이는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밟으면 무병장수하고 축에서 귀락에 간다는 전설이 담겨 있다. 올해 답성놀이는 그동안 밭집에서 지켜보기



만 했던 관광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청사초롱을 들고 성곽을 걷는 야간답성놀이는 모양성제 때에만 즐길 수 있는 백미다. 달빛 아래 사부작거리 발걸음을 소리마저 운치 있다. 또한 고창군민과 관광객이 모두함께 어우러져 손잡고 도는 강강술래달BAM은 군민들과 함께 어우러진 퍼포먼스로 환상적인 시간이 될 전망이다.

### ▲모양성 안에서도 즐길거리 대폭 강화

성내 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시도되는 '백투더 1453'도 아쉽게 준비되고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체험프로그램이다. 관광객이 직접 과거 의상이나 소품을 빌려 입고 참여하는 성내 12곳의 스탬프 체험을 통해 모양성제인의 다양한 체험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모양성 인물열전, 내가 바로 소리꾼, 시포를 이겨라, 귀신과의 율놀이 한편, 모양성 보물찾기 등 재미나고 다양한 성

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 ▲고창모양성제 '3無' 도전

고창군은 이번 모양성제를 직접 준비하면서 일회용품·바가지요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목표로 정했다. 축제기간 내내 음식을 판매하는 곳곳에 공무원을 배치해 가격과 위생 상황 등을 점검하고, 환경축제에 걸맞도록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접시 대신 친환경 다화용기 등을 사용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야별, 장소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소별로 사전점검을 마쳤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모양성제 50주년을 맞는 올해는 군민과 관광객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참여형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했다"며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해"의 대미를 장식할 제50회 고창모양성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아프면 몸편히,  
소득 걱정 없이 맘 편히

## 상병수당 시범사업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시범사업 기간

2023.7.3.~2025.6.30.

### 신청자격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

### 지위내용

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일수 (대기기간3일 제외)에 대하여 일 46,180원,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